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과 시간사용 인식 및 만족도

Child Care Time, and Perceptions of and Satisfaction with Time Use,
of Fathers and Mothers in Dual-Income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승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유경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ui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im, Yookyung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실태를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시간사용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시간일지 444부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전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 72.1분이며,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은 40.8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10.3분으로 크게 차이 났다. 돌봄유형별로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보다 필수돌봄, 발달돌봄 각각 3배, 2배 정도로 더 많았다. 셋째,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머니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버지에게 비해 낮았다.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육아' 개념을 반영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확산이 요구된다.

주제어: 자녀돌봄, 필수돌봄, 발달돌봄, 피로감, 시간부족감, 생활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ild care time, as well as the perceptions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time use, of fathers and mothers in dual-income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444 time us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Statistics Korea Life Time Surveys in 20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child care time of the two parents per family on a working day was 72.1 min on average, and more time was spent on primary care than on developmental care. Second, the father's child care time on a working day was 40.8 min on average, and the mother's time, almost

three times more—110.3 min, which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ype of care, the mother's care time was about three times more than that of father for primary care, and about two times more for developmental care. Third, the mother's primary care time differed by household income level, and the primary care time of both fathers and mothers diffe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working hours weekly. Fourth, both fathers and mothers felt somewhat tired and had a time deficit, but mothers were less satisfied than fathers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between them.

To encourage fath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child care, they must be informed of their joint responsibility with their spouse as parents must be emphasized under the term "co-parent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systems that support parental care and promote a family-friendly culture in workplac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parents.

Key words: childcare, primary care, developmental care, tiredness, time deficit, life satisfaction

I. 서론

부모의 생활시간 배분이나 부부간 노동 분담 등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소영·진미정, 2015; 김외숙 외, 2016; 이재림·손서희, 2013). 가족생활주기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이 시기 부모는 자신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에도, 배우자와의 공평한 역할 분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자원의 특성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시간 부족은 특히나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시간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과 가정 영역 간 시간을 조직하는 것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를 통해 외벌이 가정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은 차이가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김소영·진미정, 2016; 박은정 외, 2022; 이영환, 2012;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자녀돌봄 참여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양육자라는 점에서 부부간 균형적인 양육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간에는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고(박희숙, 2016), 여러 관련 연구를 통해 아버지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이타적 행동, 사회성, 문제해결력, 아버지-자녀 간 애착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광웅·이인수, 1998; 서석원·이대균, 2004; 이영환·백지은, 1998; 장영애·이영자, 2009), 특히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금전 투입보다 시간 투입이 자녀

발달에 대한 생산성이 더 크다고도 한다(Del Boca, Flinn & Wiswall, 2013). 부모의 돌봄시간에 대한 논의는, 부부간 노동 분담의 공평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녀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이 자녀발달을 위한 주요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논의는 부모로서의 의무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부모권 내지 가족생활권이라는 권리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충분한 돌봄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로서만이 아니라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돌볼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어머니와 비교할 때 돌봄시간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주로 참여하는 행동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문금, 2005; 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이승미, 1997). 자녀돌봄 행동은, 신체적 돌봄과 간호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돌봄행동과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와 같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정은·서지원, 2021),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돌봄행동 모두 필수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의 측면에서는 두 돌봄유형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돌봄행동은 높은 강도의 신체활동이 요구되며 반복을 통한 숙련이 필요하고 참여 시간에 대한 융통성도 적은 반면, 발달 관련 돌봄행동은 참여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가능하며 행동 자체의 특성도 상대적으로 놀이 또는 여가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돌봄행동 유형에 따라 양육자가 느끼는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두 가지 돌봄유형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균형 있게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필수돌봄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주로 어머니에 의해 많은 부분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김유경, 2022; 박은정 외, 2022; 이정은·서지원, 2021).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로 어떤 돌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는 부모의 자녀돌봄 태도를 파악하

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양육책임이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 행태를 정확히 비교, 파악하기 위해서는 돌봄시간의 총량만이 아니라 돌봄행동의 유형을 분류하고, 필수 돌봄과 발달돌봄 각각에 사용한 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돌봄에 사용한 총시간을 살펴보거나 또는 개별 돌봄행동별 시간을 살펴보는 경향이였다. 돌봄행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의 경우도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돌봄행동만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고은주·김진옥, 2016) 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돌봄시간을 비교한 연구(고은주·김진옥, 2016; 김유경, 2022; 이정은·서지원, 2021), 아버지의 돌봄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이정은·서지원, 2021) 등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유형별 시간 사용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은정 외(2022)의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시간을 신체적·일상적 돌봄, 상호작용 돌봄, 다른 일을 하면서 함께하기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시간일지 자료의 분석이 아닌, 돌봄에 사용한 시간을 기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한편 시간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자신의 시간사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피로감이나 시간부족감, 그리고 여가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시간 사용량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시간 중 많은 부분을 직장 일과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 노동에 할애해야 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가 자신의 매일매일의 시간 사용과 전반적인 삶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돌봄유형별로 구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모가 느끼는 시간부족감이나 피로감, 그리고 시간사용과 관련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맞벌이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을 주관적 인식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 참여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돌봄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현황

연도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김소영·진미정, 2016; 송유진, 2011).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사회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세대로 비교해 보아도 변화의 경향은 유사했다. 2004년-2019년의 기간 동안 청년세대(20-30대)와 중년세대(40-50대) 모두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였다(고선강, 2020; 서지원, 2020).

일반적으로 자녀수는 돌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 투자가 중요함을 더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시간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김소영·진미정, 2016)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중과 주말에 증가했다.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더 길고 기간별 증가속도도 더 빨랐으며, 아버지의 돌봄시간은 주말에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김소영과 진미정(2016)은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의 증가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주말의 양육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로 인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한 아버지 상(像)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았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연구에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자녀돌봄 시간이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23.3분에서 47.0분으로,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23.6분에서 37.3분으로 증가했다.

주은선 외(2014)는 1999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돌봄시간 증가 폭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돌봄시간 증가를 이끈 주축은 여성이라고 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긴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박은정 외(2022)의 최근 연구에서도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남성과 여성 간에 모든 돌봄유형에서 돌봄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돌봄시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 패턴이 어떠한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참여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손문금(2005)은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은 미취학 자녀의 신체 돌보기를, 남성은 미취학 자녀와 놀아주기와 같은 돌봄을 주로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승미(1997)는 아버지가 주로 참여하는 자녀양육 관련 행동은 시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매일 반복해서 일정하게 해야 하며 비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어머니의 주된 양육행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이 좀 더 의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즐거움이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좀 더 반(半)여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안수미 외(2013)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관련 시간 중 자녀와의 공유시간이 자녀돌보기 시간에 비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었으며, 이는 아버지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돌봄노동이라기보다 여가의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자녀양육 참여의 차이는 남아 있지만, 종단분석 결과는 아버지의 돌봄 참여에도 시간에 따른 변화의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은과 서지원(2021)은 2004년-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분석하였는데, 2004년에는 아버지의 발달돌봄 참여율이 필수돌봄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비슷하고,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필수돌봄 참여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있어 발달돌봄은 물론 필수돌봄 시간 또한 늘어났다는 결과를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긍정적 변화로 해석하였다.

2) 자녀돌봄 유형 분류

부모의 자녀돌봄의 실태와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돌봄시간과 참여율은 물론, 돌봄행동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돌봄 관련 행동을 직접돌봄과 간접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자녀돌봄의 경우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돌봄을 주된 행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부차적 행동으로 자녀돌봄을 했는지를 직접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녀돌봄 시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권순범과 진미정(2016), 박은정과 이성림(2013), 박은정 외(2022), 안수미 외(2013), 윤자영(2018), 주은선 외(2014)와 같이 자녀돌봄시간에 직접 돌봄과 간접 돌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까지도 포함하여 폭넓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생활일지 자료를 분석한 상

당수 연구들은 직접돌봄 행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행동 분류 중 '자녀 돌보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주행동'으로 한 시간만을 분석했다.

한편 연구의 필요에 따라 돌봄 관련 행동을 행동 자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후 유형별 시간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연구별로 '신체적 돌봄'과 '비신체적 돌봄'(양심영·김유경, 2013), '기본적 돌봄'과 '상호작용적 돌봄'(고은주·김진옥, 2016; Craig & Powell, 2011), '필수 돌봄'과 '발달 돌봄', '기타 돌봄'(이정은·서지원, 2021) 등으로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하였지만, 신체적 돌보기와 간호 등의 행동을 하나의 유형으로, 그리고 공부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아이와 놀아주기와 같은 행동을 또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Bianchi et al.(2004)과 Craig & Powell(2011)은 부모-자녀 간 관계적 행동기준을 적용하여, 놀이나 학습과 같이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높은 특성을 가진 관계적 시간(engagement time/ talk-based-care)과 기타 기본적 보살핌 시간(basic time)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돌봄에는 이처럼 일상적이며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된 돌봄행동과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돌봄행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돌봄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각각의 성격과 특징이 다르므로 부모의 자녀돌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전체 돌봄시간 외에 돌봄유형별 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을 비교할 때에는 부모 각자가 돌봄유형별로 균형 있게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분류를 적용하여 영유아 부모의 자녀돌봄을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필수돌봄은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활동으로 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먹여주기, 씻겨주기, 기저귀 갈기, 간호하기 등으로 구성되고, 발달돌봄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주로 간헐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아주기, 학습 도와주기, 함께 외출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3) 자녀돌봄 시간 관련 변인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은 돌봄 수요 관련 요인과 부모가 가진 시간자원의 가용성 관련 요인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녀 연령, 자녀수 등이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영유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등 시간 가용성 관련 요인을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안수미 외(2013)는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노동시간이며, 자녀돌보기시간은 물론 가사공유시간이나 여가공유시간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한 김소영과 진미정(2016),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연구결과에서도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자녀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현아, 김선미와 이승미(2016)는 아버지의 근무용통성을, 김나영(2017)은 근로시간과 직장유형, 근로시간형태를 확인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분담을 유형화한 김소영(2017)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비분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비분담형보다는 자녀돌봄분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인과 배우자의 시간가용성이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편 주은선 외(2014)의 연구에서 시간가용성 관련 요인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여부가 자녀돌봄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여부나 취업형태 같은 시장노동 관련 시간가용성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우자 취업여부와 미취학자녀수와 같은 돌봄 수요 관련 요인도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부모 간 자녀돌봄 책임의 분담에 있어 이중부담 모델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 부모의 양육 참여나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부모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성역할태도이다.

이정은과 서지원(2021), 이현아 외(2016), 최유정, 최미라와 최선희(2019)의 연구는 아버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세대에 따른 가치관이나 태도의 차이, 자녀 연령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ullivan(2010)은 영국에서 1965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에 고학력 남성 집단에서 자녀돌봄시간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고학력, 중산층 아버지들에게 참여적인 아버지 역할 문화가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학력이 높은 부모가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고했다(송유진, 2011; 이정은·서지원, 2021; 주은선 외, 2014; 차은호·유조안, 2020). 송유진(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자녀 연령 및 돌봄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신체적 돌보기와 놀아주기 시간에서, 학령기 자녀의 경우 공부 봐주기 시간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돌봄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이지 않았다. 주은선 외(2014)의 연구에서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이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노혜진

(2014)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별로 돌봄의 배열에 차이가 나타났다. 고은주와 김진옥(2016)은 저소득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고소득은 부모로 하여금 상호작용적 돌봄을 증가시키도록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성역할태도도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유정 외(2019)의 연구에서 성역할태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돌봄시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수미 외(2013)와 이현아 외(201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는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유진(2011)과 주은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가 자녀돌봄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시계열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김소영과 진미정(2016)은 최근에 올수록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강해졌다고 하였고, 이정은과 서지원(2021)은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외벌이 아버지들의 경우 최근까지 성평등의식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시간 사용 관련 인식 및 만족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근로시간이나 자녀돌봄 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시간량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감이나 시간부족감, 시간 사용과 관련한 만족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성란(2006)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시간부족과 피곤함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들었다.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박은정과 이성림(2013)의 연구결과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시간부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자녀 양육시간 유형별로 시간부족감의 차이가 없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주당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의 시간부족감이 가장 높았다.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세리와 이강이(2018)의 연구에서도 시간부족감은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유형별 시간사용 만족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지원과 이정은(2022)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과 2019년의 두 조사시기 모두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은 전체 성인집단에 비해 짧았으며, 2004년에는 종교활동 외의 모든 여가활동에서, 2019년에는 전체 여가활동에서 아버지의 시간이 어머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익현과 주이화(2021)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 아내와 남편 모두 본인의 시간부족감, 삶의 만족도, 가사분업 만족도, 배우자의 여가만족도가 응답자의 여가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 모든 아내 집단에서 돌봄노동 시간량이 증가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이나 여가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사분업만족도 등의 심리상태를 고양시키는 방식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가족 내 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나 공평성 인지는 부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은광·이기영, 2003; 유계숙 외, 2011). 김소영(2017)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모두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아내에 비해 높으며,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 분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반면, 아내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맞벌이 가정 부모의 시간부족감이나 가사분담 만족, 여가 만족이 이들의 시간 배분 및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주관적 요인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사용 관련 인식(피로감, 시간부족감)과 만족도(여가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의 201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전국 12,388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26,091명의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원자료 중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되, 자녀돌봄 관련 인적 자원 및 상황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녀돌봄의 차이에 집중하기 위해 부모와 영유아 자녀 1명으로 이루어진 3인가구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 부모가 직장일로 인한 시간 부족을 겪는 가운데 자녀돌봄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근무일의 시간일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출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시간일지 444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이 중 아버지의 시간일지는 총 244부이며, 어머니의 시간일지는 총 200부였다. 그리고 '주행동'으로 행해진 자녀돌봄 행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토대로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에 포함된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를 자녀돌봄 행동으로 포함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동에 사용한 시간을 자녀돌봄시간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2020)의 자녀돌봄 관련 행동 분류에 대한 해설은 <표 1>과 같다.

생활시간조사와 병행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주관적 인식 등의 관련 변수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자녀돌봄 관련 행동 분류 해설

분류명		분류 해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만 10세 미만 가족 및 가구원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등 돌보는 행동
		간호하기	사고, 질병 등으로 아픈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을 간호하는 행동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을 학습시키기 또는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물 챙기기 등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동 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행동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과 놀아주거나 함께 스포츠를 하는 행동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보육기관, 교육기관의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행동
		기타 돌보기	만 10세 미만의 아이 돌보기 행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돌봄 관련 행동 (자녀와 상호작용이 없이 지켜보는 행동은 기타 돌보기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2020). 201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1권 생활시간량편, 515-516.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변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돌봄 행동 유형은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연구를 참고해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기타돌봄’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분류 중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은 자녀와 상호작용이 없는 활동이어서 소분류 ‘기타 돌보기’와 함께 ‘기타 돌봄’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0.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과 참여율, 시간 사용 관련 인식(피로감, 시간부족감),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돌봄 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아버지 간에 돌봄시간과 참여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T-test)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 유형별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유형별 시간과 시간사용 인식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40대(21.2%), 20대(11.7%)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65.8%, 고졸이하가 24.6%이며, 대학원졸 이상이 9.7%였다. 연구 대상 가정의 가구소득은 500만원-700만원미만이 34.8%로 가장 많고, 400만원-400만원미만이 27.6%, 700만원 이상이 18.1%, 400만원미만이 19.5%였다. 연구대상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이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인 만큼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의 주당 근로시간(주업+부업)은 평균 45.0시간이며, 남성은 50.5시간, 여성 38.4시간으로 성별에 따라 10시간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소득 또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나타나 남성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미만과 300만원-400만원미만이 전체의 70% 가량 되며 400만원이상도 24.6%인 반면, 여성의 경우 200만원미만이 45.0%로 가장 많고 200-300만원미만이 다음으로 38.5%였다. 이와 같은 주당근로시간이나 개인소득에 있어서의 남성-여성 간 차이는 취업형태의 차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전일제 취업이 98.0%인 반면, 여성의 경우 전일제취업이 71.4%이었다.

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는 전체 평균 4점 만점에 3.35점으로 대체로 평등주의적인 편이었으며, 남성 3.15점, 여성 3.59점이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래 〈표 3〉에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35.9세이며, 남성 평균 연령은 36.8세, 여성 평균 연령은 34.7세이다. 연령별 구성은 30대(67.1%)

2.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율

1)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행위자율(참여율)을 돌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t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돌봄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명	정의와 측정	
자녀 돌봄 유형별 시간	전체 돌봄	2019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의 대부분류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중 중분류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에 해당하는 행동에 사용한 시간의 총합
	필수 돌봄	자녀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행동-행동분류표의 소분류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에 사용한 시간
	발달 돌봄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자녀의 발달 촉진에 도움이 되는 행동(행동분류표의 소분류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활동 하기’)에 사용한 시간
	기타 돌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속하지 않는 돌봄 관련 행동(행동분류표의 소분류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에 사용된 시간
자녀돌봄 참여율	전체 응답 중 위의 자녀돌봄 관련 행동에 각각 10분 이상 시간을 사용한 응답의 비율(시간일지는 시간 사용을 10분 단위로 기입하므로 해당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비율로 봄)	
태도 및 인식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응답으로 값이 클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임을 의미함 (1-4점)
	시간부족감	평소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값이 클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낌을 의미함 (1-4점)
	피로감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값이 클수록 피곤하다고 느낌을 의미함 (1-4점)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남성(244)	여성(200)	전체(444)	
	빈도(%) / M(SD)	빈도(%) / M(SD)	빈도(%) / M(SD)	
연령	20대	29(14.5)	52(11.7)	
	30대	149(61.1)	298(67.1)	
	40대	72(29.5)	94(21.2)	
	평균(세)	36.8(4.9)	34.7(4.9)	35.9(5.0)
교육수준	고졸이하	43(21.5)	109(24.6)	
	대졸	155(63.5)	292(65.8)	
	대학원이상	23(9.4)	20(10.0)	43(9.7)
가구소득	400만원미만	14(22.2)	43(19.5)	
	400-500만원 ↓	45(28.4)	61(27.6)	
	500-700만원 ↓	58(36.7)	77(34.8)	
	700만원이상	26(16.5)	40(18.1)	
	200만원미만	14(5.7)	90(45.0)	104(23.4)
개인소득	200-300만원 ↓	88(36.1)	77(38.5)	165(37.2)
	300-400만원 ↓	82(33.6)	21(10.5)	103(23.2)
	400만원이상	60(24.6)	12(6.0)	82(16.2)
취업형태	전일제	192(98.0)	120(71.4)	312(85.7)
	시간제	4(2.0)	48(28.6)	52(14.3)
근무유형	주5일제 근무	158(64.8)	135(67.5)	293(68.0)
	기타	86(35.2)	65(32.5)	151(32.0)
	주당 근로시간(시간)	50.5(11.6)	38.4(10.5)	45.0(12.6)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1-4점)	3.15(.78)	3.59(.69)	3.35(.77)	

a 가구소득 및 취업형태 변수는 결측치로 인해 총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b 주당 근로시간은 지난 1주일간의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합한 시간임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과 참여율,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돌봄시간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돌봄시간은 평균 40.8분이며, 자녀돌봄 유형별로는 필수돌봄이 20.3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달돌봄이 17.9분이며, 기타돌봄은 2.6분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전체 돌봄시간은 110.3분이며, 필수돌봄이 67.6분, 발달돌봄이 33.9분, 기타 돌봄이 8.8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필수돌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음으로 발달돌봄, 기타돌봄의 순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필

수돌봄 시간과 발달돌봄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각각 20.3분, 17.9분), 어머니의 경우 필수돌봄 시간(67.6분)이 발달 돌봄 시간(33.9분)의 2배 가량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근무일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체 돌봄시간이 아버지는 40.8분, 어머니는 110.3분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자녀돌봄시간은 물론 돌봄유형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 돌봄 모두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특히 필수돌봄 시간은 어머니의 돌봄시간(67.7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20.3분)보다 3배 이상 많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

구분	전체돌봄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	
돌봄시간(분) M(SD)	전체(444)	72.1(68.0)	41.7(43.9)	25.1(36.6)	5.3(14.2)
	아버지(244)	40.8(51.7)	20.3(31.7)	17.9(31.7)	2.6(10.5)
	어머니(200)	110.3(66.0)	67.6(42.7)	33.9(40.2)	8.8(17.1)
t값	-12.443***	-13.388***	-4.687***	-4.705***	
참여율(%)	전체(444)	78.4	68.7	46.8	20.0
	아버지(244)	63.5	47.1	34.8	9.8
	어머니(200)	96.5	95.0	61.5	32.5
	χ^2	70.523***	117.110***	31.382***	35.225***

*** $p < .001$

참여율의 경우 돌봄유형별로 보면 필수돌봄 참여율이 68.7%, 발달돌봄 참여율이 46.8%이며, 기타돌봄 참여율은 20.0%로 가장 낮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참여율은 필수돌봄 > 발달돌봄 > 기타돌봄의 순이었다.

맞벌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돌봄과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 모두 어머니의 참여율이 아버지의 참여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돌봄 참여율이 어머니는 96.5%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반면, 아버지의 경우 63.5%만이 10분 이상 자녀돌봄에 참여하고 있었다. 필수돌봄의 경우 어머니의 95.0%가 참여하는 반면 47.1%의 아버지만이 참여하였으며, 발달돌봄의 경우 61.5%의 어머니가 참여하는 반면 아버지의 경우 34.8%만이 참여하였다. 기타돌봄의 경우 32.5%의 어머니가 참여하는 반면 아버지는 9.8%만이 참여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근무일에 자녀돌봄 시간은 물론 참여율에서도 돌봄유형과 무관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하위집단별 자녀돌봄시간 비교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이 관련 변인-연령대,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당 근로시간, 성역할태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녀돌봄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의 두 가지 돌봄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변인별

하위집단 간에 돌봄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 방법은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녀돌봄 유형 중 '기타 돌봄'은 해당 행동에 사용한 시간 사용도 적고 참여율 또한 낮아 아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연령대와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당 근로시간, 성역할태도에 따라 둘 이상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필수돌봄 시간과 발달돌봄 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필수돌봄 시간이든 발달돌봄 시간이든 연령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상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연령과 관련하여 세대별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위집단별로 자녀돌봄 시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주당 근로시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주당 45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주당 45시간 이하)보다 필수돌봄 시간이 많았으며, 발달돌봄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하위집단별로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이상인 집단들에 비해 필수돌봄 시간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도 발달돌봄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육수준 및 성역할태도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5〉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위집단별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

단위: 분

변수	아버지(244)		어머니(200)		
	필수돌봄	발달돌봄	필수돌봄	발달돌봄	
연령대	20대	18.7	19.6	80.3	33.1
	30대	23.1	15.4	65.0	33.6
	40대	15.1	22.5	68.6	36.8
	F	1,563	1,244	1,579	.067
교육수준	고졸이하	13.8	14.1	73.5	26.0
	대졸	21.5	19.2	67.4	37.8
	대학원이상	30.9	20.4	56.5	24.0
	F	2,826	.672	1,088	2,098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21.0	12.1	97.1 ^a	45.0
	400-600만원 ↓	21.8	20.7	56.2 ^b	39.3
	600만원 이상	25.2	30.6	53.5 ^b	43.0
	F	.225	2,792	4,956 ^c	.108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이하	28.5	21.6	72.2	36.3
	45시간 초과	15.0	15.4	48.7	24.1
	t	3.315 ^{***}	1,502	3,719 ^{***}	1,682
성역할태도	전통적	20.5	14.2	80.0	48.0
	평등주의적	20.3	18.7	66.6	32.8
	t	.031	-.777	1,429	1,054

^ap<.05, ^bp<.01, ^cp<.001

3.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관련 인식과 생활만족도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관련 인식-피로감과 시간부족감-과 생활만족도-여가시간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표 6〉을 보면 평소 하루일과 후 느끼는 피곤함의 정도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4점 만점에 3.33점, 3.39점으로 대체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편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느끼는 시간부족감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4점 만점에 3.26점, 3.33점으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 편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는 모두 시간부족감을 느끼며 하루일과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로감이나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나 가장 줄이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표 7〉은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 그리고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 가장 줄이고 싶은 일을 물어본 결과이다. 피로감의 이유로 아버지의 85.9%가 직장 일(85.9%)을 꼽았으며, 두 번째 이유가 자녀 양육이지만 그 비율은 4.8%로 상당히 낮았다. 반면 어머니들은 직장 일이 54.6%로 가장 높기는 하나 자녀 양육도 29.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

다. 또한 아버지들의 경우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 가장 줄이고 싶은 일이 직장 일(70.9%), 이동시간(14.1%) 등 직장 관련 시간에 집중된 반면, 어머니들의 경우 직장 일(56.2%) 다음으로 가사(양육 제외)(24.7%)를 줄이고 싶은 일로 들었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이 피로감의 주요 요인 중 하나(29.6%)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줄이고 싶은 일은 자녀 양육(8.4%)보다는 양육 외의 가사(24.7%)를 크게 인식하는 점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은 힘들어도 시간을 줄일 수 없는 중요한 일이며, 힘들지만 보람과 행복감을 주어 줄이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여가시간 만족도와 가사분담 만족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6).

여가시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아버지 2.82점, 어머니 2.6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여가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며, 둘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아버지 3.52점, 어머니 3.11점으로 모두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아버지의 만족도가 어머니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아버지 3.38점, 어머니 3.36점으로 비슷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6〉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관련 인식과 생활만족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피로감 (1-4점)	시간부족감 (1-4점)	여가시간 만족도 (1-5점)	가사분담 만족도 (1-5점)	삶에 대한 만족도 (1-5점)
전체(444)	3.36(.57)	3.29(.74)	2.75(1.07)	3.34(1.03)	3.37(.93)
아버지(244)	3.33(.60)	3.26(.77)	2.82(1.12)	3.52(.92)	3.38(.97)
어머니(200)	3.39(.53)	3.33(.70)	2.67(1.00)	3.11(1.11)	3.36(.88)
t값	-.989	-1.034	1.496	4.218***	.240

*** $p < .001$

〈표 7〉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관련 인식의 차이 - 피곤함의 이유 및 시간부족시 가장 줄이고 싶은 시간

항목	빈도(%)			
	피로감의 이유 ^a		가장 줄이고 싶은 일 ^a	
	아버지(227)	어머니(196)	아버지(206)	어머니(178)
직장 일	195(85.9)	107(54.6)	146(70.9)	100(56.2)
자기 학습	1(0.4)	5(2.6)	6(2.9)	3(1.7)
자녀 양육	11(4.8)	58(29.6)	11(5.3)	15(8.4)
가사(양육 제외)	7(3.1)	8(4.1)	5(2.4)	44(24.7)
교제와 사회활동/인간관계	5(2.2)	5(2.6)	8(3.9)	4(2.2)
이동시간	3(1.3)	10(5.1)	29(14.1)	12(6.7)
기타	5(2.2)	3(1.5)	1(0.5)	0(0.0)

^a 해당 두 문항은 피곤함을 느낀다, 시간부족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함

〈표 8〉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시간과 시간 인식 및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변수	피로감	시간부족감	여가시간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전체 돌봄시간	-.058	-.040	.023	-.110*	.046
필수돌봄 시간	.003	-.013	-.030	-.096*	.046
발달돌봄 시간	-.125**	-.065	.068	-.062	.000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 시간이 피로감이나 시간부족감, 그리고 각종 생활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8〉). 부모의 피로감은 발달돌봄 시간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필수돌봄시간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전체 돌봄시간이나 필수돌봄시간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발달돌봄 시간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부족감이나 여가시간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돌봄시간이나 돌봄유형별 돌봄시간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살펴볼 수 없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느끼는 피로감은 돌봄유형 중 발달돌봄 시간과만 부적 상관을 가지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돌봄유형 중 필수돌봄 시간과만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유형에 따른 시간 사용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실태를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시간사용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행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자녀돌봄 행동을 돌봄유형별로 나누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사용과 참여율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직장 일과 어린 자녀의 양육이라는 두 가지 노동 부담을 가진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 및 생활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전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 72.1분이었다. 돌봄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필수돌봄 시간 41.7분, 발달돌봄 시간 25.1분, 기타돌봄 시간 5.3분으로, 자녀돌봄 시간 중 대부분이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의 특성상 필수돌봄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전체 자녀돌봄 참여율은 근무일 평균 78.4%이며, 돌봄유형별 참여율 또한 필수돌봄(68.7%), 발달돌봄(46.8%), 기타 돌봄(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돌봄시간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 간에 전체 돌봄시간과 필수돌봄 시간, 기타돌봄 시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전체 돌봄시간은 물론 유형별 돌봄시간 모두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40.8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10.3분으로 크게 차이 났다. 돌봄유형별로 구분해 보아도 필수돌봄의 경우 어머니의 시간(67.6분)이 아버지의 시간(20.3분)보다 3배 정도 많으며, 발달돌봄의 경우 어머니의 시간(33.9분)이 아버지의 시간(17.9분)보다 2배 정도로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 참여율 또한 어머니의 참여율이 아버지의 참여율보다 전체 돌봄과 유형별 돌봄 모두 더 높았다. 특히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의 참여율은 어머니의 참여율이 아버지의 참여율의 2배 가까이 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 필수돌봄에는 절반가량(47.1%), 발달돌봄에는 1/3 정도(34.8%)가 참여하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 필수돌봄은 대부분이(95.0%), 그리고 발달돌봄에는 2/3 정도(61.5%)가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하위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대, 교육수준 및 성역할태도에 따른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돌봄 시간이 길다는 선행연구(이정은·서지원, 2021; 이현아 외, 2016; 최유정 외, 2019) 및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송유진, 2011; 이정은·서지원, 2021; 주은선 외, 2014; 차은호·유조안, 2020)와는 다른 결과이다. 성역할태도와 가구소득은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어머니의 필수돌봄시간에 하위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해 어머니의 필수돌봄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돌봄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하위집단 간 필수돌봄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하인 경우 45시간 초과인 경우보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필수돌봄 시간이 더 많았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동시간이 자녀돌봄시간이나 자녀돌봄유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소영, 2017; 김소

영·진미정, 2016; 안수미 외, 2013; 이정은·서지원, 2021).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는 없었다. 피로감의 이유로 대부분의 아버지가 직장 일을 든 데 비해, 어머니의 경우 직장 일이 첫 번째 이유이기는 하나 자녀양육도 중요한 이유로 응답했다. 시간부족시 가장 줄이고 싶은 일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직장 일을 첫 번째로 들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양육 외 가사노동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낮은 정도, 가사분담 만족도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으며, 이 중 가사분담 만족도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버지에 비해 낮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느끼는 피로감은 돌봄유형 중 발달돌봄 시간과만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가사분담 만족도는 돌봄유형 중 필수돌봄 시간과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위의 연구결과가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자녀돌봄 시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근무일 1일 평균 7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12시간 정도 아버지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들의 긴 근로시간이 자녀돌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아버지의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김유경(2022)의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근무일과 비교해 좀 더 시간가용성이 높은 비근무일에 더 많은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근로시간의 조절을 통해 아버지들에게 자녀돌봄에 사용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선행연구들도 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긴 근로시간과 그로 인한 시간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참여율 또한 어머니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관련 행동을 10분 이상만 하면 행위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30% 이상이 근무일에 자녀돌봄 시간이 전혀 없으며, 돌봄유형별로 필수돌봄에는 절반 정도의 아버지가, 발달돌봄에는 2/3 정도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데 전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해 볼 만한 문제이다.

또한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어머니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만큼 어머니에 비해 자녀돌봄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

지와 어머니 간 근로시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은정 외(2022)에 의하면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의 변동-근로시간 또는 일자리의 변동은 여성이 70.4%, 남성이 33.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을 조정할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자녀돌봄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기보다 어머니가 자녀돌봄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근로시간이나 일자리의 조정할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자녀돌봄 시간이나 참여율 자체뿐 아니라 시간 사용과 관련한 인식에서도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직장 일과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중부담을 가지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통으로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가만족도도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일과 후 느끼는 피로감의 이유로 자녀양육을 꼽은 아버지는 4.8%에 불과한 반면, 어머니의 경우 29.6%가 자녀 양육을 피로감의 이유로 들었다. 또 어머니들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아버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사분담은 자녀양육과 양육 외의 가사노동을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가사분담 만족도는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본 연구에서 돌봄행동의 범위에 포함된 직접적인 돌봄뿐 아니라 돌봄을 위해서는 관련 가사노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 예를 들어 필수돌봄에 해당하는 아이를 먹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을 보고 조리를 하는 것, 먹인 후 뒷정리와 설거지를 해야 하는 가사노동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의 가사노동 중 상당 부분이 돌봄 내지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분담 만족도를 통해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여전히 자녀돌봄 시간이나 가사분담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아버지들의 공동양육자로서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양육 및 가사 참여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영유아기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도 직장노동과 가정 내 노동으로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체로 평등주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 개인 차원에서의 생각이나 행동상의 변화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아버지들이 자녀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한편 많은 어머니들이 피로감의 이유로 자녀 양육을 들고 있지만(전체의 29.6%) 시간부족 시 줄이고 싶은 일 중 자녀양육은 8.4%의 응답에 그치고 있다. 어머니들에게 자녀 돌봄은 힘들지만 그것이 주는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나 만족감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줄이기 힘든 일이기도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유

형별 자녀돌봄 참여가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돌봄유형별로 그것이 가지는 성격이나 부모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느끼는 피로감은 돌봄유형 중 발달돌봄 시간과만 부적 상관을 가지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돌봄유형 중 필수돌봄 시간과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유형별로 일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 부모의 시간 배분과 참여, 그리고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즉 부모가 피로감이 높은 경우 발달돌봄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형이라면 필수돌봄 시간은 그러한 조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로 보여지며, 부모의 가사분담 만족도를 낮추는 데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달돌봄보다는 필수돌봄 시간이다.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은 타인에게 돌봄을 위임하고자 할 때 그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돌봄시간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돌봄유형 중 필수돌봄 시간에서만 그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필수돌봄시간이 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40분 이상 많았는데,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필수돌봄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의 영향 또한 발달돌봄이 아닌 필수돌봄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어머니 모두 주당근로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보다 필수돌봄 시간이 더 적으며 발달돌봄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발달돌봄은 필수돌봄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보다 부모 자신이 직접 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은 돌봄유형으로 보인다. 놀아주기나 책 읽어주기와 같은 발달돌봄의 경우 필수돌봄에 비해 부모 자신이 직접 돌봄을 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돌봄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또 근로시간이 많아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임하기보다 부모 자신이 직접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수돌봄의 경우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것과 같이 그 시간을 조정하거나 융통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인해 부모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필수돌봄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돌봄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아버지들은 필수돌봄에 해당하는 자녀돌봄 활동보다는 발달돌봄에 해당하는,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같은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필수돌봄에의 참여율이 발달돌봄에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여서 시기적 특성상 필수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데다 맞벌이로 부모 모두 시간제약이 있어 아버지들의 필수돌봄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이정은·서지원, 2021)의 시계열 분석

에서 아버지들의 미취학자녀 돌봄 참여와 시간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수돌봄 참여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비교해 보면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간 필수돌봄 시간의 차이는 발달돌봄의 차이보다 더 컸다. 아버지들은 필수돌봄 시간과 발달돌봄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어머니들의 경우 필수돌봄 시간이 발달돌봄 시간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발달돌봄 뿐 아니라 필수돌봄에도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필수돌봄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아버지들의 필수돌봄에 대한 참여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생의 초기에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 기본적 욕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애착은 향후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아버지들의 필수돌봄 참여는 부모 간 돌봄 분담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버지들의 필수돌봄을 포함한 자녀돌봄 증가는 분명 필요하며, 부모교육과 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족센터 및 영유아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돌봄과 관련한 아버지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20-40대 맞벌이 아버지들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전반적으로 평등주의적인 편이었으며,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든 평등주의적이든 그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 아버지들의 가치관과 책임감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아버지들의 육아가 자녀와 부모, 가족 모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고 아버지들이 충분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교육이나 부모교육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남성의 양육참여를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다수의 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에서 애착이나 '아빠효과'와 같이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아버지의 소극적인 '육아 참여'가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육아'의 개념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부모의 의무로서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자기 자녀를 돌보고 부모 역할을 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권리의 측면도 가진다. 이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감소, 육아휴직과 휴가, 유연근무제 등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와 직장 내 가족친화적 문화의 확산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돌봄유형 중 필수돌봄의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융통성이 적으므로 부모에게 근로시간이나 근로방식의 조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불어 본 연구대상의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반영할 때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여가를 포함한 개인으로서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돌봄시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저소득 맞벌이 가정 여성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율을 돌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총 돌봄시간량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맞벌이 부모의 돌봄유형별 참여의 차이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돌봄유형에 따라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부담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모 공동육아의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녀돌봄 시간의 총량 외에 돌봄유형별 돌봄시간과 참여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 인식이나 만족도 등 돌봄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행동'으로서의 자녀돌봄 행동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돌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권순범과 진미정(2016)은 어머니가 다른 행동을 하는 중이라도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자녀에 대해 신경 쓰는 등 모니터링과 개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차적 행동으로 일어난 돌봄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수미 외(2013)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가지는 반(半)여가적 특성으로 인해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과소측정하고 평가절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자영(2018)은 일상생활에서 부모는 TV 시청 같은 여가·문화 활동이나 청소, 설거지 등의 가사 활동, 식사하기 같은 개인유지 활동을 할 때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자녀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간접 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응답자가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지 않아 생활시간조사에서 동시행동으로 포착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을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차적 행동'이나 '간접 돌봄노동'으로서의 자녀돌봄 행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사용에 대한 기록과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돌봄행동으로 포함한, 직접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행위 외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가사노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중 자녀돌봄을 위한 행동이나 시간만을 구

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가사노동시간 중 자녀 돌봄을 위해 수행된 가사노동만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녀돌봄 시간은 실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20). 중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1-77.
- 2) 고은주·김진욱(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26(4), 35-62. DOI : 10.15709/hswr.2016.36.4.35.
- 3) 권순범·진미정(2016).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 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27-43. DOI : 10.7466/JKHMA.2016.34.3.27.
- 4) 기은광·이기영(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61-75.
- 5)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2.
- 6) 김나영(2017).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동정책연구, 17(4), 31-54. DOI : 10.16975/kjfs.67.3.1.
- 7) 김세리·이강이(2018).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3), 1-19. DOI : 10.14698/jkce.2018.14.03.001.
- 8) 김소영(2017). 남편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부담 유형별 관련요인 및 부부의 가사분담만족도: 맞벌이 부부와 비맞벌이 부부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3), 47-72. DOI : 10.21321/jfr.22.3.47.
- 9) 김소영·진미정(2015).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71-88. DOI : 10.7466/JKHMA.2015.33.2.71.
- 10) 김소영·진미정(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 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1-19. DOI : 10.7466/JKHMA.2016.34.5.1.
- 11) 김외숙·송혜림·조희금·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25-43.
- 12) 김유경(2022).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영향 요인-맞벌이 여부 및 돌봄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71-84.

- DOI : 10.22626/jkfrma.2022.26.2.005.
- 13) 노혜진(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 14) 박은정 · 이성림(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15) 박은정 · 조미라 · 윤지연 · 류연규 · 윤자영(202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1) :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16) 박희숙(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유아기 발달 간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0(3), 251-272.
 - 17) 서석원 · 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18) 서지원(2020). 청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5-69.
 - 19) 서지원 · 이정은(2022).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평일여가에서 나타난 변화(2004-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4), 39-52. DOI : 10.22626/jkfrma.2022.26.4.004.
 - 20)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21)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5.
 - 22) 유계숙 · 강수향 · 오아림 · 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23) 안수미 · 이기영 · 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93-119.
 - 24) 양심영 · 김유경(2013).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75-91.
 - 25) 윤자영(2018). 돌봄노동 시간 개념과 측정: 자녀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171-200.
 - 26) 이승미(1997). 가족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307-330.
 - 28) 이영환 · 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1-28.
 - 29) 이재림 · 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30) 이정은 · 서지원(2021).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변화 추이 분석(2004-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103-120. DOI: 10.22626/jkfrma.2021.25.3.007.
 - 31) 이현아 · 김선미 · 이승미(2016). 학령기 이동을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고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231-261.
 - 32) 주익현 · 주이화(2021). 유급노동 · 가사 · 돌봄 · 여가 시간사용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1), 109-133. DOI : 10.31693/KJPS.2021.03.44.1.109
 - 33) 장영애 · 이영자(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9.
 - 34) 주은선 · 김사현 · 김민성(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건연구*, 30(2), 367-400.
 - 35) 통계청(2020). 201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1권 생활시간량편(표1-5).
 - 36) 차성란(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지하는 시간부족 및 피곤함에 대한 연구. *자연과학*, 16, 145-159.
 - 37) 차은호 · 유조안(2020).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돌봄시간 격차의 변화와 분해-. *한국가족복지학*, 67(3), 5-33. DOI : 10.16975/kjfs.67.3.1.
 - 38) 최유정 · 최미라 · 최선태(2019). 가정 내 역할 수행 및 돌봄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0(1), 1-28. DOI : 10.31502/SSRI.50.1.1.
 - 39) Bianchi, S., Cohen, P. N., Raley, S. & Nomaguchi, K. (2004). Inequality in parental investment in child-rearing: Expenditures, time, and health. *Social Inequal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89-219.
 - 40) Craig, L. & Powell, A. (2011). Non-standard work schedules, work-family balanc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childcar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74-291.
 - 41) Del Boca, D., Flinn, C. & Wiswall, M. (2013). Household choices and child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1), 137-185.
 - 42) Sullivan, O. (2010).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s in fathers'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Sociology*, 44(4), 716-733.

■ 투 고 일 : 2024년 03월 13일
■ 심 사 일 : 2024년 04월 04일
■ 게재 확정 일 : 2024년 04월 25일